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하박국-

## 어찌하여 !

(하박국 1장 1 - 17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박국서 1장에는 “어찌하여”, “어느 때 까지리이까” 라는 철학적 질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 1. 어찌하여 악한 자를 방관하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 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대”(2절).

선지자는 세상의 강포한 자들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찌서 세상에 패역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느냐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만의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집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대”(3절).

집달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행입니다. 선지자의 이 기도는 종교적인 파오보다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면 그 사람의 종교행위와 경건생활은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본문은 경건의 시금석으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이니이다”(4절).

경건하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경건은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삶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도덕적인 죄를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아니라 결국은 종교 문제로 귀의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갖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도 바르게 감당하고 도덕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으므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 2.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될 것을 보고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6절).

이스라엘을 침략할 갈대아 사람들은 성급한 백성들로 한 번 결정한 일은 불같이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자기들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7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완벽한 무기가 있습니다(8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9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기 위한 정확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와 같이 바벨론의 강함과 민첩함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재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을 드시어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더 악한 자, 곧 바벨론이 덜 악한 자인 유다를 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흥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10절).

바벨론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멸시하고 견고한 성을 비웃으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망할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11절).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한 백성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망할 갈대아 사람들에게 의해 유다 민족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안타까운 질문을 합니다. 어찌서

이 일을 방관하고 계시느냐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대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대”(12절).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을 해도 유다는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잠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계시다면 어찌서 악인들이 흥왕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지배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신앙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목적을 이루시고, 그 중심은 교회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지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합 2:3).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튼튼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사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3 사명자 대회 시작되다

## 오늘부터 11월 23일(주)까지 50일간

우리교회는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처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매년 교회설립 기념주일 전 50일을 사명자 대회로 모이고 있다. 우리는 이 기간 중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편으로 전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사명자대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로 작정하였다. 곳곳에서 병들고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한 이 때

에 기도로 응답받기위해 사명자대회 본부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 대회 기간중 모두가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자의 시간별 기도표를 작성하여 오늘 순례자에 기재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지난 주 받은 기도카드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적어 제출함으로 24시간연속기도에 참석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시간·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0.6(월) 1교구	김광신 이재원	이성득	오정수 황정욱	<b>세 벽 기 도 회</b>			김장애 조영자	박정순 연기욱	전행자 이인숙	김일순 임승자	하옥봉 박영자	배병희 김연화	김희진 미영수 김광룡	최영진 서경약										
10.7(화) 1교구	노문환 박정선	이규정	김태기 머익철				정동학 조성엽 조성엽	여연진 이봉선 박영숙	민중우 김정운 남준희	민중우 김정운 남준희	최래욱 전경욱	최금자 이영숙 김희진	이영자 장애자	서문석 서문석	강낙훈 강낙훈	강애자 강애자								
10.8(수) 2교구	정병무 박두영	김윤호	홍정호 조정식				전인화 최남수 방계순 최영순 김경희 이윤희 선우신자	정우선 조신자 이은자 윤금자	수요1부예배 한정아 이영애	주익연 선경자 조미란	이신정 김지은 관희순 김영숙	최금례 노순례 오충례	베논의 윤길만 손순옥 박승룡	김찬진 김수호	수요2부예배 이동만 홍향배 안향연	유근종 최홍열 최영렬 유관모 최규조								
10.9(목) 3교구	최종시 오영출 손영석	윤영국	김대호 김영주 정병무				김영주 이애순 이우상 양옥자 김정순	박분옥 외 3-13	여영숙 외 3-7	김유경 최정순	남대순 이봉규	김현정외 3-11	김희진 이경우 외 3-3	유영준 이인선 윤성남										
10.10(금) 4교구	윤동준 김형택 최치순 백예숙	한상근	성준경 이태상 김금준 이연주				박우욱 최정희 수영강	장경자 장효욱 표명자	김영식 김예순 이승희 최영자 김복녀	홍광숙 최양혜 문연순	임훈규 김춘제 박희서 김미자	삼아기도 대악·정년부 이약주 송인권 김태기 윤정희 윤복순 김성철	오영숙 장영자 김종윤 김규태 이광을 박미애											
10.11(토) 5.6교구	김영준 최승걸	오정식	이영기 한길동				김정희	김정희	남옥진 김경희 최혜순	심상필 우선자	염금순 이영희	김복옥 심익숙	김정희 김정희	오규자										

## 오늘부터 예배시간에 파이프오르간으로 영광돌려

지난주 순례자를 통해 공개선발한 파이프오르간 연주자들 성도 앞에 소개하였던 우리교회는 10월 첫 주일이 되는 오늘 I,II,III부 주일예배시간과 찬양예배 시간부터 파이프오르간으로 영광을 돌리기로 한다. 수요예배(I,II부)는 전자 오르간을 사용한다.

## 9월 새가족 환영회

강미선 장성은 강요섭 강유리 강인선 강희성 고영진 고정배 고정희곽종일 권효진 김명교 김병현 김미경 김미현 김민정 김병우 김병호 김상운 김선근 김성연 김소희 김수연 김승현 김애리 김영순 김예은 김채숙 김정연 김진영 김춘경 김태우 김태완 김태정 김한성 김혜정 김희순 김희정 남일우 도다솜 문금혜 문예인 박경숙 박수용 박종욱 박지현 방소희 배소현 백성훈 서경애 서명아 서명희 손상근 송영남 신아라 심나래 심연지 양원실 오유경 온길현 유재준 이 용이건우 이경민 이동인 이동일 이명란 이만재 이성재 이애란 이용철 이준혁 이형인 이희애 이희태 임명선 임원자 임정중 임종훈 임지수 임태현 임효진 장은숙 장은지 장진명 장희옥 전미혜 전한나 정현석 정효진 조인오 조경녀 조정희 조현수 전한경 채그림 채주식 채하늘 최공주 최소정 최영철 최우정 최지호 하명일 현병희 홍신혜 홍하늘 (이상 107명)

## 제3회 전국자원봉사자 수화찬양대회에서 에바다부 금상수상

지난 3일(금) 본교회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 자원봉사자 수화찬양대회에서 우리교회 에바다부 수화찬양팀(단장:전인화 권사)이 금상을 수상하였다. 단원은 안인호, 박준희, 김관길, 서명철, 최낙준, 김성희, 김미향, 이경희, 윤주현, 박운영, 이조은, 김윤수, 박현주, 구진경, 이명순, 최혜진, 유수진, 홍유미등이다.

## 10월 행사계획표

- 10. 3(금) - 제3회 전국 자원봉사자 수화찬양대회 (서울교회)
- 10. 5(주) - 사명자대회 발대식(10. 5-11. 23), 새가족 환영회, 교육위원회
- 10.12(주) - 전도위원회
- 10.17(금) -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장로고시
- 10.19(주) - 교구위원회
- 10.22(수) - 학습 세례식
- 10.26(주) - 성경암송대회(예산: 각부서별), 청년부 연신예배
- 10.31(금) - 성경암송대회(본선)





장로가정탐방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나의 것이야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11교구)



신앙 1세대가 되어 부모님과 형제에게 전도를 하여 이제는 온 일가가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룬 노문환 장로님은 1948년 경남 함양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노 장로님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유학을 오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고향에서 간혹 동네에 있는 교회를 구경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교회를 가본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당시 영어교사로 재직하며 기독교학생회를 지도하시던 이종운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노 장로님은 이종운 목사님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요,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호칭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고 한다.

노 장로님은 6대 종손 집안의 장남으로 처음에는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크게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에는 온 집안을 전도하여 복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그 시간부터 차곡차곡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1987년에 장로 장립을 받고 지금까지 근 40여년이 지났으나 돌이켜보면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마음뿐이다.

지난여름 노 장로님의 장모이신 천병희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직장에 다니는 딸 장 권사 대신 아이들의 육아를 담당하며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자신의 믿음을 손자들에게 물려준 장모님이셨다. 그 때 노장로님의 다섯 동생들이 모두 장례에 참석하여 마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장례식장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선천계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며 장남은 부모의 대신이니 동생들을 잘 보살피라는 말씀을 남기셨으나, 동생들이 워낙 착했고 무엇보다 어머니 이민화 권사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기도를 힘입고 잘 성장하여 모두가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 6남매를 키우시며 신앙으로 곳곳하게 버티신 어머니께 어찌 말로 다 감사할까.

아내 장정화 권사와는 청년부에서 만나 1977년에 결혼을 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 대신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놀이터 삼아 그 안에서 뛰놀며 자라더니 큰 아들 선균이는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둘째 재균이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 어머니가 7년 전 몸져 누우실 때까지 꼬박 20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장정화 권사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간 교회에 다하지 못했던 충성을 다하기 위해 7기 70인 전도대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번 찬양예배 때 전도자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아 전도를 따라 나갔다가 전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노 장로님과 함께 전도대 교육을 받기로 했다.

지금 중등부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노 장로님은 청소년들이 좀더 교회 문화에 젖어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서울교회가 외적 성장과 더불어 내적으로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고 한국교회 갱신을 향도하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 1:29).

노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다. 그는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했던 만큼, 주님을 위한 고난도 분명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우리가 지원하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 자매결연 교회 중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교회에서 우리교회의 수재의연헌금을 지원받고 보낸 감사의 편지이다.



월전교회

압곡교회

둔병교회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영호남이 영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과 같은 섬 지역은 특히 바람이 많은 편인데 제 평생에 이런 큰 태풍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예배당은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서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91년 건축할 때 그런 행정절차를 밟지 못한 채 건축한 것 같습니다. 93년에 제가 왔을 때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교회가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충분한 건축비를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처에 부실한 흔적이 많았고 여름철에는 곳곳에 피어나는 곰팡이로, 겨울철에는 스며드는 찬바람으로 난로를 피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태풍에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줄 알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하여 주신 덕분으로 알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긴급히 복구비를 지원하여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피해가 엄청난지라 어디에도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서울교회의 도움으로 지금은 거의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교회 성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9월23 월전교회 담임목사 문경두

존경하는 이종운 목사님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보내주신 수재의연헌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태풍 매미의 너무나도 강한 바람 때문에 교회위에 설치 되어있던 십자가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렸는데 이번 지원금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2층이 조립식이어서 너무나 심한 비바람으로 사방으로 비가 새어 들어와 흥건히 젖어 이곳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압곡교회는 미자립 교회로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교회가 파손되어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이번에 변함없는 도움의 손길을 펴주신 서울교회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서울교회와 이종운 목사님 위에 항상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2003. 9.22  
압곡교회 서양수 목사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님 받아 보십시오.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시는 서울교회의 부흥 발전과 전도위원회의 발전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위와 이종운 목사님 가정위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곳 둔병교회 성도들과 저희 가족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수재의연헌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아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 복구에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이종운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위원회 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과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둔병교회 성도들은 꾸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새신자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들께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둔병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안녕히 계십시오.  
2003년 9월19일  
둔병교회 류한록 목사 드림



**이용식 목사(교구담당)**

기계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인간의 정신적 부담이 날로 가중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우울증은 "문화감기"라고 불리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15세 이상 성인 9명 중 1명이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현대인들의 심리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정신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이 우울증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잘못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잘못된 생각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든 우울증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죄로 인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우울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도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모든 우울증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형태는 상실에 대한 경험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잘못된 생각은 대체로 정신병의 원인을 마귀의 역사나 귀신들림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마귀의 역사에서 비롯되되보다는 다른 정신이상으로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신앙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우울증과 기독교적 해결방법

셋째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핍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믿음이 강하거나 깊은 사람은 결코 우울증에 걸리지 않거나 빨리 이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우울증에 걸린다면 그것은 영적인 패배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울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거나 우울증에 걸릴 때마다 그것을 약한 믿음의 표시로 단정 짓는 것은 옳기 못한 것이다.

네 번째로 잘못된 생각은 어떤 사람이 우울증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형벌로서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그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울증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돌림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부정적 견해로 바뀐다. 자기 자신, 자기 세계, 자기 장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실패한 사람이거나 혹은 나쁜 사람이거나, 또는 경멸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나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부정확하게 혹은 조금하게 결론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부정적인 사고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다.

첫째는 본인 스스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사고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 바른 가치관과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둘째로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입기 쉽다. 이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줌을 통해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로 고립된 생각에서 빠져 나오도록 함께 모이는 장소에 초대하여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일에 관심을 갖게 한다.

넷째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 찬양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고 예배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한다.

우리는 이들을 정죄 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얼어붙은 저들의 마음을 녹여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도와야 한다.

## 2003사명자대회 공동기도제목

1. 사명자들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 죄를 회개하고 자복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압당한 현실 중에도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전진 하게 하옵소서
3. 잃은 양을 찾게 하시어 기갈중에 있는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4. 우리의 가족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 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5.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서울교회 새예배당이 사명자들의 헌신으로 헌당하여 민족복음 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6.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사회적 곤경에 처한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7.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 동정

- 이사: 최래옥 집사종로구 통인동 5-1번지 효자APT303호 723-4018
- 금주의 식사: 왕경회원사(자녀결혼을 감사하며)

##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 유관도(요리문답반 지도교사)

지난 9월 21일 주일 찬양예배가 끝난 뒤 65명의 성도들은 부장장로님 덕에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올해 초 새가족부 내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기 위해 3개 반 2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시작한 '요리문답반'이 9개월 만에 9개 반 100여명으로 늘어나 서로를 가깝게 알기 위해 가진 찬양과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빠른 시간 내에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신 분들 중 제대로 봉사가 어려운 원입교인들을 중심으로 장로교 교리의 기본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1년간의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요리문답반'은 매 주일 2부 예배 후 601호에서 100여명의 성도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며 요리문답을 공부한 후 8층 만나홀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다 보니 형제처럼 가까운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도하시는 김재진 목사님께서 주옥같은 교재를 기도

로 준비하여, 소그룹을 인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주일 오후 2시에는 30명이 넘는 교사와 청강생들이 숨을 죽이며 강의를 경청하여 602호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배운 교재와 강의를 묵상하며 강의를 준비하는 "양육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매주 한 차례씩 전화심방을 하는 "기도교사"는 멋진 동역자의 길을 걸으며 장년 성경공부반의 새로운 포맷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주, 2주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40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계획과 예정, 사람의 창조, 십계명, 은혜, 세례와 성만찬 등 끊임없는 진리와의 목마름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기도와 진력을 다한 강의로 지도해 주신 김재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러한 말씀과 요리문답의 은혜를 나누어 만민에게 전도하는 도구로 삼아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요리문답반 파이팅!!!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3 사명자 대회에 큰 은혜있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복회자 신학세미나, 경도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악도 :

